

이준석 후보는 성상납 의혹부터 밝히십시오

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후보는 반성은 고사하고 대선을 최악의 저질 네거티브 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.

논점 흐리기로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이 후보의 수법입니다.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이 후보는 본인 의혹부터 해명하시기 바랍니다.

지난 27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상납장부에는 이 후보의 성접대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<2013년 8월 15일 숙소 및 접대 요청(새누리당 이준석 의원), 유성 리베라 호텔(성 접대) 130만원>, <2013년 8월 22일 선물요청(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용) 900만원>. 지출내역서에 명시된 구체적 기록입니다.

언론에 따르면, 이 후보는 장부에 기재된 8월 15일, 실제로 대전에 내려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만난 것이 확인됩니다. 이후 리베라 호텔로 이동해 룸살롱을 간 것이 김 대표 문자메시지로 확인된다고 합니다.

김 대표는 이 후보를 정치에 입문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 비선권력으로 큰 의혹을 받았던 1명과의 유착도 의심되는 사람입니다. 두 사람의 관계성을 볼 때 장부의 내용을 단순 허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.

이에 대해 이 후보는 검찰 수사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명합니다. 국민들이 듣기에 마치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. 실제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입니다.

만약 해당의혹이 공소시효 이내 제기되었더라면 어찌면 지금의 ‘이준석 후보’라는 단어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.

지금 이 후보의 입에서 쏟아지는 각종 궤변은 본인의 잘못을 감추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. 역대급 공중파 막말, 명태균 의혹, 김건희 통화 의혹, 그리고 성접대 의혹까지,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..

이 각종 의혹들은 지금 이 후보를 향하고 있습니다. 그 의혹에 답하는 것에는 굳이 압도적 새로움까지도 필요치 않습니다. 부디 기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들은 지금 압도적 해로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.

2025년 5월 29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